

韓・中・日 古典文學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이경미**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질투 유형과 분석
 - 1) 자기수렴형 (억압형)
 - 2) 자타수렴형 (잠재형)
 - 3) 자기발산형 (변이형)
 - 4) 자타발산형 (파괴형)
3. 나오며

1. 들어가며

인간에게 질투처럼 강렬한 감정이 있을까? 질투는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유사 이래 질투와 관련된 기록들이 적지 않다. 서양문학의 근원인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질투는 인간에게 빠질 수 없는 숙명적인 감정으로 나오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 는 이집트인 첩 하갈이 아들을 낳고 거만을 떠다고 죽음의 사막으로 내몰며¹⁾,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헤라는 바람둥이 남편 제우스와 관계있는 여자마다 질투하고 괴롭혔다. 문학과 예술영역에서도 인간의 질투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었다. 셰익스피어 작 '오텔로'는 남편의 질투가 불러온 비극으로 질투에 미쳐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는 참혹한 결말을 지니고 있고,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를 우회적으로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1)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5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리에르의 질투심을 주된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투의 무시무시한 힘은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양의 역사와 문학의 공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애국시인 굴원과 남송의 충신 악비를 죽음으로 내 몬 것도 남성들의 질투심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사마천의 《史記》속의 한고조 유방의 아내 여후는 그가 남편을 도와 천하 통일을 한 탁월한 정치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척부인의 눈을 도려내고 귀를 멀게 하고 팔다리를 잘라서 인간돼지로 만들어 화장실에 버리는 무시무시한 질투와 복수의 화신으로 기록되어 있다.²⁾ 이처럼 남녀의 성차,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질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만큼 ‘질투’의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이고, 자극적이며, 또한 지극히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질투’는 어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교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부장체제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질투를 ‘여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짓고 이를 ‘범죄시’하고 있었다. 한자 ‘질투’(嫉妬)의 부수가 모두 계집녀(女)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라 할 것이다. 위진의 송·명조가 여성의 질투를 금하기 위해서 우통지(虞通之)로 하여금 《투부기(妬婦記)》를 편찬하게 한 것이나, 명의 사조제(謝肇淛)가 《오잡조(五雜俎)》에서 왕후장상에서부터 민간 부녀자들의 질투의 이야기만을 백 여 개 이상을 모아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여성들의 질투에 관하여 최고권력자 황제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또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이맹균의 부인 이씨가 질투심으로 남편과 통정한 여종을 때려 죽인 일이 문제가 돼 이맹균이 관직에서 파면된 일이 있었다.³⁾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학을 사회교육 이념으로 채택한 에도 막부는 《와조 쿠도지쿤(和俗童子訓)》을 대표로 하는 여훈서(女訓書)를 대량으로 간행

2) 《史記·本紀9·呂太后》

3) 이 일을 보고 실록의 편찬자들은 “이씨의 질투가 지나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세종 22년 6월17일).

하여 질투하지 않는 현모양처 교육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처럼 한중일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개인적, 사적인 질투의 감정을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작품마다 잘 반영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고전 문학 속에서 여성의 질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당시의 여성의 질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속에 반영된 여성관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일 고전 문학 작품 중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세계를 풍부하게 표현함으로써 특히 여주인공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린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한국의 경우에는 《三國遺事》·《謝氏南征記》, 중국의 경우에는 《霍小玉傳》·《聊齋志異》 등을 주된 텍스트로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今昔物語集》·《雨月物語》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고전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질투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질투 유형과 분석

한중일 고전 문학 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 여성의 질투의 모습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먼저 분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 질투심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억압, 잠재시킴 등으로 내적으로 수렴시키거나 혹은 외부로 발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렴형(I)과 발산형(II)으로 구분하고, 수렴이나 발산이 여성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 또는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기형(A)과 자·타포함형(B)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토대로 한중일 고전문학속의 여성의 질투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A)	자타(B)
수렴형(I)	억압형	잠재형
발산형(II)	변이형	과괴형 (단순과괴/ '변이'를 통한 과괴)

〈표1.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질투유형〉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구분에 근거해 자기수렴형-억압형(1), 자타수렴형-잠재형(2), 자기발산형-변이형(3), 자타발산형-과괴형(4)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자기수렴형 (억압형)

봉건시대 여성의 최고의 악덕 중 하나는 질투였다. 당시 여성의 질투는 봉건 제도의 과멸을 부르게 된다는 인식적 사고를 지닌 시대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질투를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여 봉건제도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질투는 ‘七去之惡’으로 규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질투하는 여인은 성숙하지 못할 뿐더러 옳지 않은 여인으로 간주되었다.⁴⁾ 여성이 지니는 ‘질투’의 심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악덕을 열거한 ‘七去之惡’⁵⁾의 한 조목으로 편입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다소곳하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이고 포

4) 최기숙,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 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18 (2003), 326쪽.

5)《孔子家語》 권6 〈本命解〉에서 ‘七出’과 ‘三不去’의 경우를 언급했는데, ‘七出’은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경우로서 ‘不順父母者’·‘無子者’·‘淫僻者’·‘嫉妒者’·‘惡疾者’·‘多口舌者’·‘竊盜者’를 말하고, ‘三不去’는 비록 ‘七出’에 해당하더라도 내쫓을 수 없는 3가지 경우로서 ‘有所取無所歸’·‘與共更三年之喪’·‘先貧賤後富貴’를 말한다.

용적인 여성을 현부(賢婦)로 간주하던 당대의 풍토 속에서 인간 본연의 질투의 감정과 의사 표현에 적극적인 여성은 남편의 박대를 받기에 마땅한 요소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한중일 고전 작품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다른 여성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종과 인내로 감수하는 여성들은 칭송받고 결말에 있어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 서포 김만중의 《謝氏南征記》라 할 수 있다. 현숙한 본처 사씨가 ‘질투하지 않는 부덕’과 인내심으로 교활한 첩 교씨의 온갖 악행과 모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 이야기다. 사씨는 “덕행과 용모가 출중”한 여성이지만 9년 동안 자식이 없자, 자진해서 남편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한다. 그러나 “해당화 한송이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나부끼듯 하는” 절세佳人인 교씨의 미모를 보고 매파는 “(첩은) 부덕(婦德)이 있고 생산을 잘 하오면 그만이어늘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용모 자색(姿色)이 출중(出衆)하오니 부인의 뜻에 합당치 못할까 하나이다.”로 만류한다. 시모 두부인마저 교씨의 미모와 젊음이 불러올 처첩간의 질투와 그로 인한 가정의 분란을 걱정하자, 사씨는 아래와 같이 말하며 안심시킨다.

"첩이 어찌 감히 옛적 성인(聖人)을 바라리카마는 시속 부녀들이 인륜(人倫)을 모르고 질투를 일삼아 가도(家道)를 문란케 하는 이가 많음을 한탄하는 바오나, 첩이 비록 용렬하오나 어찌 이런 행실을 하리이까."

자진해서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자신은 시속 부녀들처럼 가도를 문란케 하는 질투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 성품이 교활한 교씨는 첩으로 들어 온 후 술과 가야금으로 남편을 유혹하며 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씨는 질투심을 억제하고, 교씨가 낳은 아들마저도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한다. 교씨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본부인의 자리를 노리고 동청이라는 한량을 끌어들여 갖가지 흥계를 꾸민다. 교씨는 마침내 자기 소생인 아들까지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덮어씌워 사씨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하지만 결국 교씨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교씨는 처

형되고 사씨는 남편 유연수와 재회한다.

중국 청초 포송령의《聊齋志異·林氏》편의 아름답고 현숙한 임씨도 그녀의 ‘질투하지 않는 부덕’으로 ‘성인’으로까지 칭송받고 있다. 임씨는 전란 중 자신의 목을 칼로 그어 훼손의 위기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당시의 상처로 “목이 늘 한편으로 비뚤어진”상태였다. 자신의 용모가 이 전보다 못함을 알고 자진해서 남편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유하지만 남편은 거절한다. 이에 ‘병을 핑계’로 남편을 혼자 채우고 여종을 몰래 그 방에 들여보낸다. 그러나 그 계획은 번번이 남편에게 탄로 나고 만다. ‘포기하지 않고’ 여종을 자신으로 가장시켜 결국에는 남편과 합방시키고, 여종은 임신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여종을 팔아 여종과 아들 모자간 생이별을 시키려고 하자 ‘남편 몰래’ 여종과 그의 아들을 자신의 친정집에 보내 살게 한다. 후에 여종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남편과 상봉하게 하고 평생 해로하도록 도와준다. 작가 포송령은 이야기 끝에 임씨의 행위를 아래와 같이 칭송하고 있다.

“옛날에는 어진 부인네들이 많았지만 임씨 같은 이는 진정 성인(聖人)이라 부를 만하구나.”⁶⁾

여성본연의 질투심을 억제하고 자진해서 첩을 들일 것을 권유하며, 첩과 남편이 합방할 수 있도록 여러 계책을 세우는, 그리고 첩과 남편, 그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는 여성이야말로 ‘성인’이라는 최고의 칭송을 받고 있다.⁷⁾

일본의 《伊勢物語》23화⁸⁾에서도 본처가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고 인내하자 다시 남편의 사랑을 얻는 이야기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 집이 너무 가난하자 남자가 고개 넘어 이웃마을 부유한 집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여자가 질투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보내주자,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을 거라고 판단하여 이

6) "古有賢姬，如林者，可謂聖矣！"

7) 陶祝婉, 〈德與色, 貞女賢夫與"自由女性"〉, 《浙江教育學院學報》5,(2003),22쪽.

8) 福井貞助校注・譯, 《竹取物語・伊勢物語・大和物語・平中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12, (2004)

웃마음로 가는 척 하고 다시 돌아와 집안을 살펴보았다. 밤이 되자 아내는 홀로 달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면 흰 파도가 인다는 다쓰타 산을 오늘 밤 당신께서 홀로 넘어가시네요.” 라는 노래를 부르며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실은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이 너무 싫고 질투심이 났지만 자신의 어려운 형편보다 부잣집에서 남편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붙잡지 않은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진심을 알고 다시는 다른 여자한테 가지 않았다고 한다.⁹⁾ 이처럼 질투심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다시 얻는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다.

위의 작품들 속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자기수렴형의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헌신을 아내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이 유형의 여성들에게는 축첩제도로 인한 질투의 감정은 애초부터 없거나 혹은 피할 수 없는 질투심을 고고하게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¹⁰⁾ ‘남존여비(男尊女卑)’, ‘부위부강(夫爲婦綱)’이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고대 한중일 가부장체제 사회에서 이러한 원칙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다. 여성의 질투를 봉건제도를 저해하는 악의 요소로 보고 이는 금지시키고 처벌해야 될 대상이므로, 질투하지 않는 여성 혹은 질투심을 내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여성이야말로 성숙하고 옳은 여성이며,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賢婦’,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칭송함으로써 질투심의 억압을 여성의 미덕으로 내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2) 자타 수렴형 (잠재형)

여성의 질투를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더구나, 프로이트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시사점은 고전문학속의 질투심의 잠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질투심을 포함한 인간의

9) 고선윤, 《이세모노가타리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9), 33쪽.

10) 김정애, 〈조선후기 한문소설 여성의 변모양상〉(명지대학교석사논문, 2009), 27~28쪽.

억눌린 감정은 억압된 채로 내재하기도 하지만, 꿈의 형태로 변환되어 여성의 내면에 잠재해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질투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유는 한중일 봉건사회속에서 여성의 감정, 특히 질투의 감정은 외부로 드러날 수 없는 금지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잠재된 질투심은 무의식속에서 왜곡되어 꿈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聊齋志異·鳳陽士人》과 그것을 번안한 일본의 오도기쥬시 《夢中の怪三人疵を得たる話》은 이러한 여성의 질투가 잠재된 의식의 형태인 꿈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남편의 신분과 장시간 부재의 원인이 중국에서는 선비로 공부하기 위하여 떠난 것과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로 전쟁참가라는 차이점이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聊齋志異·鳳陽士人》의 여주인공은 반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멀리 떠나간 남편이 10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몹시도 애가 탄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어떤 미인을 따라가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인과 남편은 자신 앞에서 대담하게도 엉뚱한 수작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미인이 거짓으로 취한 체하며 자리를 뜨자, 선비(남편) 역시 일어나 따라가더니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처가 홀로 남아 우두커니 앉아 있으려니 가슴 속에서 천불이 치솟아 견딜 수 없었다. (중략) 창문 아래로 다가서자 안에서 들릴락 말락 하게 남녀가 서로를 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평소 잠자리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말 그대로 미인에게 토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는 여기까지 듣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방망이질 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생각 같아선 어디 깊은 골짜기라도 찾아 들어가 죽고만 싶었다.”¹¹⁾

현실의 세계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손이 떨

11) 少間，麗人僞醉離席；士人亦起，從之而去。久之不至。女獨坐，塊然無侶，中心憤恚，頗難自堪。… 裁近其窗，則斷雲零雨之聲，隱約可聞。又聽之，聞良人與已素常猥褻之狀，盡情傾吐。女至此，手顫心搖，殆不可遏，念不如出門竄溝壑以死。

리고,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고’, ‘죽고 싶은’ 질투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조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꿈이라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의 질투심은 가부장적 봉건사회 속에서의 억압을 피하여 꿈속으로 내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대담하게 외도를 하는 남편에게 남동생이 나타나 돌을 던짐으로 금지되어 있는 욕망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로써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언급과 관심도 터부시 되었는데 꿈을 통해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외부로 발산되지 못한 질투의 강력한 에너지는 자신의 꿈에서 잠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편도 같은 꿈을 꾸게 함으로, 남편의 꿈에까지 침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의 감정 표출을 죄악으로 금기시했던 시대에서도, 꿈이라는 형식 속에서의 일탈은 어느 정도 수용,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질투는 ‘자신의’ 무의식 속 잠재된 꿈의 형태로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 속에도 침투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일본의 《今昔物語集》31권 제10화 <오와리(尾張國)지방의 마가리노쓰네카타(勾經方)가 꿈에 아내를 본 이야기>가 있다. 마가리노쓰네카타(勾經方)에게는 본처 외에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 본처의 질투가 워낙 심하여 남자는 관청에 간다는 핑계로 그 여자의 집에 몰래 들렀다가 잠시 잠이 든다. 그러다가 본처가 찾아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소란을 피우는 꿈을 꾸게 된다. 남자는 꿈에서 깨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날 본처가 그 여자의 집에서 지내고 온 것을 나무라자 남자가 시치미를 떼다. 그 순간 본처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서며 자신이 지난 밤 꿈에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킨 내용을 말하며 남편을 질책한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자신의 두 꿈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서워서 할 말을 잃고 만다.

본처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부터 수상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어디엔가 숨겨 놓은 것만 같은 여성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한 마음과 폭발하는

질투심이 꿈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남편의 꿈(무의식)에까지 침투하여 그 여성과의 사랑을 떼어 놓으려 한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작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여성의 질투에 관하여 평을 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본처의 죄는 얼마만큼 무거운 것일까. ‘질투하는 것은 죄가 무겁다. 내세에 반드시 뱀으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¹²⁾

질투의 원인 제공은 남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큰 죄인으로 보고 더구나 그 질투의 대가는 내세에까지 미쳐, 육도 윤회에서 보자면 천상, 이간, 아수라 다음인 축생인 추한 뱀으로 태어난다고 했으니 당시 일본 사회가 여성의 질투에 대해 얼마나 금기시켰으며 추하게 보았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¹³⁾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은 모두 봉건 사회 여성들의 표출하지 못한 질투심을 꿈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남편의 외도를 걱정하고 상대방 여성에 대한 질투심과 원망 등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다가 꿈이라는 무의식의 공간에서 발산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봉건제도 속의 여성의 체험세계는 꿈이나 공상, 환상처럼 사회화가 불가능한 내적 체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한 예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나마 감정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인들의 질투심이 사회구조상 외부로 표출되지 못할 경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외부로 발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질투감정의 발산형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자기발산형 (변이형)

12) “此ヲ思フニ、其ノ本ノ妻何カニ罪深カリケム。「嫉妬ハ罪深キ事也。必ズ蛇ニ成ニケムカシ」トゾ人云ケル、トナム語り伝ヘタルトヤ。”

13) 문명재, <일본 헤이안시대의 여성상>, 《일본문학속의 여성》, (서울: 제이앤씨, 2006), 68쪽.

일부 작품에서는 여성의 질투심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수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발산될 때 무시무시한 ‘변이(變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심리학자 Clanton과 Smith¹⁴⁾에 의하면 질투상황에 남녀는 다소 다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남자들은 분노하고 폭음을 하거나 폭력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자들은 울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남자들은 상대와 경쟁자 둘 다를 비난하지만,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질투에 대해 남자들은 적극적·분노적·경쟁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자들은 의존적이고 자기처벌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남성이 질투심을 느낄 경우 ‘살인’과 같은 극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일부 작품 속 여성은 내부에서 억압되지 못한 질투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과 분노를 향하게 하는 ‘변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변이’의 특징에 대하여 ‘파멸적인 내면 심정과 회생에 대한 비원(悲願)’이라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¹⁵⁾

우선, 질투심이 내부로 억압되거나 잠재되지 못하고 표현될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불교 설화집인 鴨長明의 《發心集》제5권 3화 《母妒女手指成蛇事(어머니가 딸을 질투하여 손가락이 뱀이 된 이야기)》에는 자신이 데려온 딸을 남편과 맺어주고 뒷방으로 물러난 늙은 여성이 질투심으로 인해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생을 염불을 올리면서 지내고 싶다며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 딸과 자신의 젊은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 여인이 후에 질투심으로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고 만다.

“양손을 내보이더니 엄지 손가락 두 개가 뱀이 되어 놀랍게도 혀를
넠름넠름 내밀고 있었다.¹⁶⁾

젊은 남편과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을 부부로 맺어 주는 여인의 저의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딸을 남자에게 보내어 자신의 안전을

14) Gordon Clanton, Lynn G. Smith, 《Jealousy》, (Prentice Hall, 1977)

15) 馬場あき子, 《鬼の研究》(東京: 三一書房, 1971), 220쪽.

16) “左右の手をさし出でたるを目るに 大指二つなから蛇にないて 目もめずらかに舌 ざし出でて ひろひろとす.” (三本紀人校注, 《方丈記 發心集》 新朝出版, 1993))

도모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남자를 가까이 두려는 집착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어려운 선택 뒤에는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여성 본연의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여자의 고뇌가 점점 깊어져 엄지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에서는 인간 본연의 집착과 질투의 감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⁷⁾ 여자의 집착과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뱀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혐오스러움과 거리낌을 빌려서 묘사하고 있다.¹⁸⁾ 결국 딸은 비구니가 되고 남자도 중이 되고 여자도 비구니가 되어 같이 수행한 결과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결식을 하며 비참하게 삶을 연명한다. 작가는 평론부분에 “여성의 질투는 여성들의 본성이며, 질투심과 물건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가나조오시(假名草子) 《七人比丘尼》에서도 후처에게 마음이 옮겨 간 남편을 향한 울분과 후처에 대한 질투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비늘이 돌아 서서히 뱀으로 변신하는 본처의 슬픈 모습이 보인다.

남편의 너무나도 무정한 처사를 원망하며 길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 속 깊이 원한을 품은 탓인지, 등 뒤에 이상한 것이 생겨나만저 보니 뱀 비늘 같은 것이 돋기 시작했다.¹⁹⁾

이처럼 여성이 자신의 질투심으로 인해 스스로 ‘변이’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하여 ‘변이’되는 징계를 받기도 한다. 조선의 작자미상 《전우치전》²⁰⁾에는 질투하는 여성이 도술의 힘으로 구렁이로 변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술을 따라 주는 전우치의 신기한 족자를 본 오생은 그 여인이 탐이 나 족자를 산다. 오생이 그 여인을 불러내니 여인은 족자에서 나와 술을 따라 주었다. 그 고운 태도에 반

17) 田伴正則, 〈발심집 제50집과 女人愛執恠異錄〉, 《일본학보》51, (2002), 298쪽.

18) 高田衛, 《女と蛇》, (東京: 筑摩書房, 1999), 296쪽.

19) あまりの情なき男の心かなと、色には見えずながら、心のうちのうらみ、なのめならず侍りしゆへ、うしろにおもしろき物出来侍りけるを、よくよくさぐらせて見侍れば、うろこなんどのやうなるものなり。(《七人比丘尼》, 國書刊行會, 近世文芸叢書3, 1911)

20)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2002)

해 오생이 희롱하고자 할 때, 부인 민씨가 들어와 보고는 질투가 나 그 족자를 찢어 버린다. 이를 알게 된 전우치는 부인의 행위가 남편을 업신여긴다 하여 도술을 부려 민씨를 구렁이로 변하게 한다. 후에 부인이 자신의 질투심과 부덕함을 뉘우치자 본 모습으로 돌려준다. 남편이 낯선 여인과의 외도에 질투하는 본처의 심리는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심리의 여성을 예로부터 사악함의 대명사인 추악한 구렁이로 변하게 한 것은 질투하는 여성은 구렁이만큼 추악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이처럼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변이’하는 과정보다 더 극적인 경우는 역시 사후 ‘혼령(귀신)’이 되어 자신의 질투심을 발산한다는 것이다.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단성식의 《西陽雜俎·諾皋記上》에 나오는 유백옥의 처는 중국인들이 최고로 꼽는 투부(妬婦)이다. 남편이 〈洛神賦〉 속에 나오는 낙수의 여신을 사모하자 자신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그리고 물귀신이 되어 남편의 꿈에 나타나 자신도 낙수의 여신처럼 사랑해 달라고 한다. 놀란 유백옥은 죽을 때까지 절대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²²⁾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일본의 아사이료이(淺井了意)의 오토기보코(伽婢子) 제10권 제2화에 등장하는 오카노야시키부(岡谷式部)의 아내도 질투가 심하였다. 질투로 인한 부부싸움 끝에 우지강에 투신자살하게 된 오카노야시키부의 아내는, 죽은 뒤 수신(水神)이 되어 우지교(宇治橋)를 건너 시집가는 새색시들을 질투해서 못생긴 새색시가 탄 배는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지만, 예쁜 새색시가 탄 배가 지나가면 풍랑을 일으켜 시샘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물이 잔잔하면 신부가 못생겼다는 것을 금방 알았다고 한다.²³⁾

질투심으로 인한 자기 변이형의 경우, 여자의 질투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한 때 이미 그 질투는 억압된 감정의 폭발이므로 타인에게 상처

21) 여성을 뱀 혹은 구렁이와 연결시켜 사악한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경우는 한중일 고전 문학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줄고, 〈한중일 고전 문학에 보이는 여성과 뱀〉 참조.

22) 易中天, 《中國的男人和女人》(中國:上海文藝出版社, 2003), 151쪽

23) 松田修校注, 《新日本古典文學大系75·伽婢子》(日本:岩波書店, 2001), 286~289쪽.

를 주기 쉽다. 더구나 이러한 ‘통제불능의’ 감정의 발산은 생사를 넘나 들며, 정상과 비정상(‘변이’)의 경계를 초월한다. 가부장적 일부다처제하에서 현모양처의 도리를 벗어나 애욕과 질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상황 속에서 질투로 인한 변이는 결코 ‘선녀’나 ‘요정’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질투는 변이를 거치더라도 악덕한 것이라는 ‘초월적 규정짓기’(transcend identification)야말로 여자의 질투를 그리는 작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유형의 작품들이 다음에 살펴볼 자타발산형과 더불어 동양삼국에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문학적 정형(stereotype)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타발산형

(1) 단순 파괴형

앞 장에서는 질투가 ‘변이’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질투자’ 자신의 영역에 머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질투가 가장 극악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질투가 타인을 향하여 발산되고, 그 결과 타인을 파괴하는데 이르렀을 때이다. 파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주로 ‘구타와 폭언’, ‘이간질하기’, ‘함정에 몰아넣기’, ‘참소하기’ 심지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표현된다. 일부다처의 세계에서는 남자의 경제적, 가정적 우위를 의심할 수 없고, 그리하여 여자의 적은 여자, 즉 후처만 없어준다면 남편은 다시 돌아온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²⁴⁾ 질투를 외부로 발산하여 타인을 파괴시키는 이 유형의 여성들은 상대방 여성을 파괴시켜 목적을 달성시키는지든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식이 죽음을 당하거나, 거지로 전락, 또는 영원히 후사를 잇지 못하는 등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한국《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화장제도의 창시에 관한 글에도 여성

24) 조아라, 《우월물어에 나타난 악녀상 고찰》(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0), 15쪽.

의 질투로 인한 비극이 실려 있다. 왕이 세운 두 원화 ‘교정랑’과 ‘남모랑’ 중 질투심 많은 ‘교정랑’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남모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강 가에 가서 돌로 쳐 죽인다. 후에 왕이 알고 교정랑을 참수하고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화랑제도를 만들었다. 그 후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데는 화랑출신들이 공이 컸으니 남자 중심의 제도를 신설한 것은 현명한 것이고 질투심을 가진 여자들로서는 대업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질투는 대업을 망치고 그러한 여성은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중국 남조(南朝) 송(宋)의 유의경(劉義慶)이 편집한 명사들의 일화집인 《世說新語·惑溺》편에는 많은 악녀들이 출현한다. 그 중 가충의 처 광괴는 역사서 《晉書》권40에 “가충의 부인 광성군 광괴는 투기심이 있었다.”²⁶⁾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질투심이 심한 여성이었다. 광괴는 유모가 안고 있던 자신의 아이에게 남편이 입 맞추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유모를 가까이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유모를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아이는 유모를 그리워 하다가 다른 젖을 먹지 않고 굶어 죽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 여성의 지나친 질투심이 유모, 자식을 죽게 만들고 나아가 자신도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다.²⁷⁾

청초 포송령의 《聊齋志異》 속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양적인 면과 그 묘사와 형상화의 성공이라는 질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작품 여러 곳에 여성의 질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처와 첩의 질투를 다룬 《雲羅公主》의 마지막 부분에 여성의 질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사납고 질투심 강한 아내란 흡사 뱀속에 난 종기와 같아 죽고 난 다음에야 겨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니, 어찌 악독하다 아니하리오.”

28)

25) 《三國遺事》 권3 미륵선화(彌勒仙花)·미시랑(未尸郎)·진자사(眞慈師)

26) “充婦廣城君郭槐，性妒忌.”

27) 이영숙, <열녀전과 세설신어의 악녀형상 소고>, 《중국문화연구》18, (2011), 110쪽.

이처럼 여성의 질투를 뼈 속에 자리 잡은 종기처럼 지독하게 보고 죽음만이 남자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여성의 질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작품들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馬介浦》편의 처 윤씨는 첩이 임신하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낙태시키는 패악을 일삼지만 후에 자신도 백정의 처로 전락하여 매일 매질 당하고, 다시 백정이 죽자 결식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段氏》편의 부호 단씨의 아내 연씨도 남편이 계집종을 예뻐하자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을 다른 집으로 팔아 버린다. 대를 잇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첩을 들이나 첩의 아들들도 하나같이 일찍 요절한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집안의 재산을 다 빼앗길 찰나 여종의 아들이 찾아 와 아들역할을 하며 겨우 집 안의 재산을 지키자 이전 자신의 질투심을 반성한다.²⁹⁾

일본 에도시대를 풍미했던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의 대표 작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好色五人女》³⁰⁾에서도 여성의 지나친 질투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키며 비극으로 몰아넣는 이야기가 나온다. 초자에몬의 아내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츠에베의 아내 오센을 질투하여 모질게 굴었다. 남편의 실수로 떨어뜨린 그릇이 오센의 머리에 맞아 틀어 올린 머리가 풀어지자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과 정을 통했다고 생각하여 비난한다. 오센은 인내심을 잃고 욕하는 심정에 초자에몬을 유혹하여 밀회를 갖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현장을 잡혀, 자신은 톱으로 가슴을 찢러 자살하고 초자에몬도 잡혀 사형을 당하고 만다. 초자에몬 아내의 지나친 질투심이 오센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자신에게도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된다.³¹⁾

이처럼 상대를 파괴시키는 질투의 무시무시한 힘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류(異類)여인에게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류여인도 ‘여

28) “悍妻妒婦，遭之者如疽附於骨，死而後已，豈不毒哉！”

29) 吳秀華, <論明末清初의 '妒風' 及 妒婦形象>, 《古代文學研究》3, (2002), 130쪽.

30) 編輯部, 《新版 好色五人女 現代語譯付き》(東京:角川ソフィア文庫, 2008)

31) 신선향, 《일본문학과 여성》(울산대학교 출판부, 2003), 127쪽.

인'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괴기소설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雨月物語》제7화 《蛇性の姪(뱀녀의 음욕)》은 중국의 백사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으로 여인으로 변신한 뱀 마나꼬가 인간 남자 도요오에게 반해 집착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이다. 자신을 떠나 고향에 돌아간 남자가 도미꼬와 결혼하려고 하자 그녀에게 영혼이 옮겨 붙는다. 그리고 도미꼬의 입을 통해서 마나꼬는 질투에 찬 목소리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한다.

“그 옛날에 맺은 부부의 정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처럼 변변치도 못한 도미꼬를 총애하시다니, 정말이지,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이 여자가 밉습니다. (중략) 또 다시 나를 멀리하려고 하시면 그 원한은 꼭 갚겠어요. 기슈지방의 산길이 아무리 높을 지라도 당신의 피로 골짜기에서 산봉우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붓겠어요.”³²⁾

도미꼬에 대한 질투에 불타 무시무시한 말 “피로 산골짜기에서 산봉우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붓겠다.”로 협박하고 결국 죄 없는 그녀를 영문 모를 병으로 미쳐 죽게 만든다. 마나꼬는 도요오의 사랑을 끝임 없이 갈구하며, 질투심으로 상대방을 파괴시키지만 자신도 결국 법력(法力)에 의해 영원히 봉인되는 비극을 맞는다.

이처럼 한중일 고대 사회 모두 축첩제도를 긍정하고, 그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공동체질서하에서는 ‘질투에 의한 파괴’는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질투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가져올 파괴력을 알고 있던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축자들은 ‘질투의 범죄화’(criminalization of jealousy)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 질투를 내재화하고 이를 은폐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질투의 사회적 범죄낙인이 남성 중심의 종법(宗法) 질서를 한층 강화하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고 ‘현모양처’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억압하고 규제하였던 것이다.

32)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서울:문학과 지성사, 2008), 159쪽.

(2) ‘변이’를 통한 파괴형

질투심의 가장 강력하고도 치절한 발산은 역시 질투의 용광로에서 ‘자신’도 철저히 파괴되고 질투의 유발자와 관여자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형태일 것이다. 질투로 인한 마음의 고통의 깊이는 이미 현실의 벽을 넘었기에 결코 타협과 화해를 구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사생결단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이러한 파괴력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도 넘어서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자신이 현세에 받았던 고통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안겨 준다.³³⁾ 봉건적인 제도와 규율의 억압 속에 가려져 있던 본연의 질투와 원망의 모습들이 괴이(怪異)의 힘으로 산채로 뱀 혹은 괴물로 변한다거나 혹은 사후 원령(怨靈)으로의 ‘변이(變異)’를 통해서 이전의 자신을 옅어매었던 모든 굴레에서 해방된 후 도덕적 가치를 단번에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신이(神異)의 힘으로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³⁴⁾ 이 유형이 앞서 살펴본 ‘변이’와 다른 점은 질투심을 가진 여인이 다른 형태로 모습을 ‘변화’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변이를 통한 ‘파괴’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 당전기(唐傳奇) 장방(蔣防)의 《곽소옥전(霍小玉傳)》을 들 수 있다. 선비 이익이 기녀 소옥과 장래를 약속하지만, 약속을 저 버리고 모친의 권유대로 권문세가의 딸 노씨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얼마 후 이익은 어떤 남자의 주선으로 상심한 나머지 병상에 눕게 된 소옥의 거처를 방문한다. 그녀는 “왼손을 내밀어 이익의 팔을 꼭 부여잡으며, 술잔을 땅에 내 뺨개치고는 몇 번인가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는” 연약하고 상처받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익이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하자 무시무시한 저주를 한다.

“내 죽은 뒤에 반드시 모친 원귀가 되어 그대의 처첩들을 하루 종일 편

33) 김명구·윤애선, 〈복수의 전환과 다원화〉, 《중국어문논총》35, (2007), 220쪽.

34) 줄고, 〈고전 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43, (2009), 138쪽.

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³⁵⁾

그리고 이익으로 하여금 환청과 정신착란에 빠뜨려 이후에 처첩들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갖은 악행을 일삼게 한다.

이후로 왕왕 이생(이익)은 질투심으로 아내에게 매를 때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독한 학대를 가했으며, 마침내 어떤 일을 얹어 관청에 고발해 아내를 내 쫓아 버렸다. 노씨가 쫓겨 난 후 이생은 시비 잉첩 등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지만, 문득 시기와 질투를 발휘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 버리는 일도 있었다. (중략) 이렇게 이생은 부인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질투심이 발동했고 세 번이나 취처를 했지만 모두 처음 경우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했다.³⁶⁾

질투와 원망으로 얼룩진 소옥의 불쌍한 영혼은 이 후 무시무시한 원령이 되어 이익의 여러 처첩들을 지속적으로 질투한다. 소옥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질투의 고통’을 이후 이익과 다른 처첩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익과 그의 여성들(정적)들로 하여금 서로 질투하고 질투 받는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 그리고 질투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증폭시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증가시키고 있다. 자신이 받은 질투의 고통을 이익으로 하여금 그대로 느끼게 하고 동시에 그 질투의 힘으로 다른 여성들을 무차별로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복수를 자행한다. 또한 청초 포송령의 《聊齋志異·窈氏》편의 아름답고 순진한 가난한 농부 두씨집 딸도 세도가 남산복에게 농락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두씨의 딸은 흥측하고 무시무시한 원혼이 되어 남산복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부잣집 아가씨의 아버지 꿈에 나타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선언한다.

35) “我為女子，薄命如斯！君是丈夫負心若此！…我死之後，必為厲鬼，使君妻妾，終日不安！”(김종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36) “爾後往往暴加捶楚，備諸毒虐，竟訟於公庭而遣之。盧氏既出，生或侍婢媵妾之屬，□同枕席，便加妒忌。或有因而殺之者。…大凡生所見婦人，輒加猜忌，至於三娶，率皆如初焉。”(김종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배신자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마시오. 만약 혼인을 시킨다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딸을 죽이겠소.’³⁷⁾

그러나 신부의 아버지는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두씨의 원령은 새색시를 목매어 자결하게 만든다. 이후로 그에게 시집 온 다른 여성도 죽게 만들어 그 어떤 여성도 감히 그에게 시집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시신 훼손죄로 관부의 손에 사형시켜 결국 자신 이외의 그 어떤 여성도 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질투와 원망으로 얼룩진 원혼의 잔인한 복수를 완성하였다.³⁸⁾

이처럼 ‘변이를 통한 파괴형’의 이야기들은 괴이(怪異)를 숭상하는 일본 문학 작품 속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 일본 《源氏物語》의 로쿠조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는 일본 고전 문학 속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동안 일본 문학사에서 사악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녀는 질투심으로 심신이 분리된 상태에서 실체를 갖지 않는 살아있는 원령이 되어 그녀가 사랑했던 히카루 겐지의 아이를 가진, 아오이노우에(葵上)의 생명과 그 주변 여성들을 끝없이 위협한다. 그녀는 황태자비라는 고귀한 신분, 최고의 지성미와 교양을 지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 이목을 중시하는 자존심과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본능적 질투 속에서 서로 갈등하다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령(生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상대방 여성을 미쳐 죽게 만든다. 후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향하여 살다가 병을 얻어 죽고 마는데, 죽어서도 그녀의 원령은 겐지 주변의 여성들을 죽이거나 출가시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³⁹⁾

일본의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御伽草子) 《かなわ》⁴⁰⁾도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후처를 맞아들이는 배신감과 질투심에 불타는 전처가 키부네 신사에 가서, 남편과 후처에게 복수하고자 하니 귀신이 되게 해

37) “其大家夢女披髮抱子而告曰：“必勿許負心郎；若許，我必殺之！”(김혜경, 《요제지이》, 민음사, 2002)

38) 安國梁, 《聊齋釋眞》(中州古籍出版社, 1993), 142쪽.

39) 조아라, 《우월물어에 나타난 악녀상 고찰》(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14~15쪽.

40) 《室町時代物語大成》(東京:角川書店, 1983)

달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신탁을 받아 온몸을 불게 칠하고, 일곱 갈래로 산발한 머리 위에 불을 붙인 가나와(삼발이)를 뒤집어 쓴 채 살아있는 무시무시한 질투의 원령이 되어 남편과 그의 후처를 무차별로 공격한다.

그리고 또 다른 오토기조시 《いそぎ》⁴¹⁾는 후처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쓴 오니(鬼) 탈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심신 모두 오니(鬼)로 변한 본처의 서글픈 모습을 보여준다. 본처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울과 장신구마저 팔아서 상경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지만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첩을 데리고 귀향한다. 분노에 찬 본처는 후처를 위협하려고 두 개의 빨과 찢어진 입,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의 모습인 가면을 쓰고 첩의 방에 들어간다. 첩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을 비교하며 슬퍼하다, 순간 다시 질투의 감정이 솟구쳐 첩을 폭행하여 죽인다. 잠시 후 본처는 가면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윽고 가면 그대로의 흉측한 형상이 된다.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도덕적인 자아와 본연의 질투의 감정의 충돌은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자신도 괴물이 되고 만다.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雨月物語》의 제6화 《吉備津の釜(기비쓰의 가마)》의 여주인공 이소라도 질투와 무서운 원념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참혹하게 파괴시킨다. 작가 아키나리는 작품 서두에 작품의 주제인 여성의 질투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질투가 강한 여자만큼 힘에 부치는 것은 없으나, 그래도 나이를 들고 보면 그 나쁜 공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 도대체 누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던 말인가. 그 해로움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고는 해도, 가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부수고 이웃의 나쁜 말을 피하기란 어려운 법인데, 그 해악이 클 경우에는 집안을 파멸시키고도 오래 동안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예로부터 질투심이 강한 여자에게 괴로움을 당한 이는 끝도 없이 많았다. 질투 끝에 사후 큰 뱀이 되거나, 혹은 천둥번개를 울려 남자에게 원한을 갚는 여자의 무리는, 그 신을 잘라 소금절이를 해도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한 예는 적

41) 《室町時代物語大成》(東京:角川書店, 1983)

다.⁴²⁾

여성의 질투를 살아서는 남편과 집안을 파멸시키고, 죽어서는 큰 뱀이 되거나 천둥번개를 울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또 그러한 여성은 죽여 소금절이를 해도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질투의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있다. 그러한 작가의 의식은 작품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 이소라는 자신의 진심을 배신하고 도망친 남편과 기녀 소테에게 원령이 되어 복수를 한다. 본처의 위엄과 자존심으로 질투심을 꼭 참고 기녀 소테를 돌보아 주는 자신의 마음마저 짓밟는 남편 앞에 이소라는 스스로 파괴된다. 이소라 원령의 질투심은 기녀 소테에게 달라붙어 며칠 동안 그녀를 실성하게 만들고 죽여 버린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토록 무심하였던 남편이 기녀 소테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치며 슬퍼하면서, 자신도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는’ 모습은 그녀의 원령으로 하여금 마지막 복수의 결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투의 고통을 주었던 소테의 무덤 앞에서 다시 다른 여성의 모습으로 유혹하여 그를 불러내고 결국에는 그마저 죽음으로 내몬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은 그녀의 깊었던 질투의 고통처럼 처참하게 그리고 있다.

열린 문 옆 벽에 묻은 피가 바닥을 따라 흘렀다. 그러나 시체나 뼈는 보이지 않았다. 달빛에 의지하여 보니 처마 끝에 무언가 있었다. 불빛을 들고 비추어보니 남자의 상투만이 처마 끝에 매달려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⁴³⁾

42) 〈妒婦養ひがたきも老ての後其の攻を知る〉と、ああこれ何人の語ぞや。害ひの甚しからぬも商工を妨げ物を破りて垣の隣のをふせぎがたく害ひの大なるにおよびては家を失ひ国を滅ぼして、天が下に笑を伝ふ。いにしへより此の毒にあたる人幾許いくばくといふ事をしらす。死にみづちとなり或は霹靂はたたがみを震うて怨みを報ふ類は其の肉を醢ししびしほにするとも飽くべからず。さるためしは希なり。(中村幸彦他, 《新編日本古典文全集-雨月物語》, 小學館, 1995)

43) 明けたる戸腋の壁に腥々しき血灌ぎ流れて地につたふ。されど屍も骨も見えず。月あかりに見れば軒の端にものあり。ともし火を捧げて照らし見るに、男の髪の毛ばかりかかりて外には露ばかりのものもなし。(中村幸彦他, 《新編日

시체도 보이지 않고 벽의 선혈과 천장에 매달린 남자 머리의 상투등의 암시적인 죽음의 묘사로 이소라의 무시무시한 질투심과 깊은 원한을 보여주고 있다.⁴⁴⁾ 또한 그의 시신조차 사라지게 한 것은 이소라가 쇼타로에게 잔혹한 복수에 성공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시체나 영혼을 이소라가 집착하여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이소라는 생전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잘하고, 남편의 사랑을 뺏은 소데마저 돌보아 주는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했지만 남편 쇼타로는 자신의 것이 되어 주지를 않았다. 결국 죽어서 괴이의 존재로서만이 쇼타로를 완벽히 소유하고자 하는 원령의 질투심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⁵⁾

위의 이야기들 속의 시체마저 남기지 않는 지독한 원귀의 모습, 머리에 가나와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무시무시한 모습, 뿔 달리고 입이 찢어진 흉악한 가면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여성의 질투는 이처럼 추하고 혐오스럽다는 교훈을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질투는 여성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채로 변이시키거나, 죽어서는 무시무시한 원령이 되게 하는, 마치 벗겨지지 않고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가면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에서 보여 주고 있는 봉건제도하의 여성들의 삶은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생을 마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의 내면에는 무섭게 광분하여 휘몰아치는 심정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의 인간성에 대한 공격과 파괴인 처첩제도라는 현실을 참고 견뎌온 여성에게, 광란하는 폭풍과 같은 견잡을 수 없는 질투의 감정, 질투의 고통으로 스스로 파괴되는 변이를 거치거나, 혹은 사후 괴이의 세계라는 초현실적 세계에서 원령의 존재로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인물들이 있었다.⁴⁶⁾ 이는 남성에게 비해

本古典文全集-雨月物語》，小學館，1995)

44) 김종덕외,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문화》(서울:책세상, 2008), 290쪽.

45) 조아라, 《우월물어에 나타난 악녀상 고찰》(전남대학교석사논문, 2010), 27쪽.

46) 감영희, <기비쓰노가마로 보는 아키나리의 여성관>, 《일본문화연구》34,

사회적·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현실적으로 질투심을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을 영혼이라는 비현실적 존재를 통해 대신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⁴⁷⁾ 그리고 초현실세계에서는 이전의 모든 유가적 도덕윤리와 규율의 속박을 일체 무시하고 내재해 있던 인간 본연의 애증으로 인한 질투와 원망의 모습을 순식간에 드러내다. 그녀들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질투심은 한 순간에 무시무시하게 변하여 초자연적인 신이(神異)의 힘으로 상대방을 파괴시켜 나간다. 여성의 애증이 극한에 이르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승화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파멸케 하는 무시무시한 질투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⁴⁸⁾

3. 나가며

이상으로 한중일 고전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질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들에 내재된 의미들을 분석해 보았다.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의 '질투'를 여성의 '천성'으로 규정짓고 가정 내의 불화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질투하는 여성은 악하고 추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처벌받아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한중일 고전문학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여성의 질투를 죽음을 부르는 종기나 뱀처럼 추악하게 보고 있다. 질투도 애정의 표현이지만 정상의 도를 넘어서 뒤튼 애정의 표현이고, 질투에 사로잡힌 여성은 어떤 면에서는 종기나 뱀의 징그럽고도 두려운 모습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질투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인 남자에 대한 판단은 배제된 채 여성의 질투는 최악이며 자멸하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여인들이 가부장적 일부다처제하에서 현모양처의 도리를 벗어나 질투를 드러내는 것은 최악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어길 시 언제라도 흉측한 이물로 변신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2010), 17쪽.

47) 오문희, 《삼연의 복수 고사 연구》(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9), 65쪽.

48) 줄고,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 43(2009.3), 145쪽.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내, 순종, 희생등의 현모양처의 미덕 구현에 실패한 질투하는 여성들은 징그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 죄과를 부여받는다든 교훈을 주지시키고 있다.⁴⁹⁾ 또한 고대 한중일 남성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들 속에서 ‘질투녀’ = ‘악녀’라는 공식을 반복적으로 재생산시켰다. 더불어, 그러한 여성의 질투를 진압하는 존재로서 국가의 공권력, 남편, 종교의 힘이 등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여성비하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바탕이 되는 유불교적 인식에 설교적 주제만으로 문학작품 속에 보여지는 한중일 삼국의 공통적인 ‘여성’과 ‘질투’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상적 요소 뒤에는 거대한 동양 삼국의 문화적 배경이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중법질서의 발상지로서의 엄격함과 비정함이 존재하고 있다. 유교의 발상지답게, 중법질서의 본산답게 남자중심, 부계중심의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여성의 질투를 ‘훈육’하는 차원을 넘어 ‘비윤리화’, ‘범죄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감정을 사회화하여 조명함으로써 여성의 질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위에서 살펴본 유형별분석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 중국의 경우 자타발산형 같은 형태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강렬한 질투의 표출 방식보다 질투를 억압하고 인내하는 여성의 ‘한’적인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상적 여성들로 추앙받고 당시 문학을 만개시킨 주역들은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혹은 애초 이러한 감정이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謝氏南征記》의 사씨와 양소유의 사랑을 사이 좋게 8분의 1로 나누어 가진 《九雲夢》의 8선녀들이었다. 이것은 삼국 중 유교라는 이데올로기에 가장 강하게 간혀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자신을 억제하는 인내와 순종만이 자신의 존재

49) 이용미, <설화 및 물어에 나타난 변형, 변신의 양상>, 《일본연구》23, (2005), 18쪽.

를 드러낼 수 있었던 억압구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작품 속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여성들이 상대방에게 비교적 자유스럽게 구애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질투하는 여성들이 산채로 뱀이나 괴물로 변한다는 발상은 일본 특유의 ‘괴이’를 숭상하는 ‘그로테스크’한 민족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유교적 윤리체제와 그 끝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교리와 도덕성의 강조보다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중시하고 그것에 충실한 일본인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⁵⁰⁾

이처럼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질투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던 시대에 그 질투는 일체의 부정적인 의미로 덧칠되어 여인들의 가슴을 헤집고 다녔다. 때론 억압되어, 때론 표출되면서 그 사회의 공기를 마시면서 다양한 문학형태와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우린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있을지 모르나, 비극이든 희극이든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의 삶이었고, 사랑이었다. 아직도 여성의 질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전문학의 눈높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공명을 던지고 있다.

<參考文獻>

- 감영희, 〈기비쓰노가마로 보는 아키나리의 여성관〉, 《일본문화연구》34, 2010.
 고선윤, 《이세모노가타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박사논문, 2009.
 김만중, 《사씨남정기》, 서울:해원출판사, 2003.
 김정애, 〈조선후기 한문소설 여성의 변모양상〉, 명지대학교석사논문, 2009.
 김명구, 윤애선, 〈복수의 전환과 다원화〉, 《중국어문논총》35, 2007.
 김중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 서울: 박이정, 2005.
 김종덕외,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문화》, 서울:책세상, 2008.
 김혜경(역), 《요제지이》, 서울: 민음사, 2002.
 문명재, 《금석물어집의 세계》, 서울: 제이앤씨, 2006.
 문명재, 《일본문학속의 여성》, 서울: 제이앤씨, 2006.
 신선향, 《일본문학과 여성》,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3.

50) 졸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뱀〉, 《석당논총》48, (2010), 153쪽.

- 오문희, 《삼언의 복수 고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미영, 《삼언의 꿈 서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경미,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 43, 2009.
-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뱀〉, 《석당논총》48, 2010.
- 이용미, 〈설화 및 물어에 나타난 변형, 변신의 양상〉, 《일본연구》23, 2005.
- 이한창, 《우계쓰 이야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 일연,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조아라, 《우월물어에 나타난 악녀상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최기숙,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 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18, 2003.
- 田伴正則, 「발심집 제50집과 女人愛執怪異錄」, 《일본학보》51, 2002.
- (清) 浦松齡, 張友鶴校, 《聊齋志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陶祝婉, 〈德與色, 貞女賢夫于“自由女性”〉, 《浙江教育學院學報》5, 2003.
- 安國梁, 《聊齋釋眞》,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 易中天, 《中國的男人和女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 吳秀華, 〈論明末清初的‘妒風’及妒婦形象〉, 《古代文學研究》3, 2002.
- 鄭恩玉, 〈《灰闌記》人物形象及人物關係結構分析〉, 《劇作家》5, 2010.
- 高田衛, 《女と蛇》, 東京: 筑摩書房, 1999.
- 馬場あき子, 《鬼の研究》, 東京: 三一書房, 1971.
- 三本紀人校注, 《方丈記·發心集》, 東京: 新潮出版, 1993.
- 福井貞助校注譯, 〈竹取物語 伊勢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2, 東京: 小学館, 2004.
- 松田修, 〈上田丘成の世界〉, 《日本の古典》17, 東京: 集英社, 1990.
- 松田修校注, 〈伽婢子〉,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 東京: 岩波書店, 2001.
- 中村幸彦他,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雨月物語》, 東京: 小学館, 1995.
- 中村幸彦, 《日本古典文学大系56·上田秋成集》, 東京: 岩波書店, 1959.
- 編輯部, 〈いそぎ〉, 《室町時代物語大成2》, 東京: 角川書店, 1980.
- 編輯部, 《新版 好色五人女 現代語譯付き》, 東京: 角川ソフィア文庫, 2008.

<中文提要>

以儒道佛家为思想背景的男尊女卑的韩中日旧社会里, ‘嫉妒’一直被认为是女性的天性。为了防止女性的嫉妒心理, 国家和个人都做出了很多努力。他们认为女性的嫉妒, 并不是一个个人和单纯的问题, 而是一个社会化的, 立体性的, 深刻的社会问题。这些思想意识一直存在古代韩中日语作品里。本文对此有着深入的研究。

据此, 本文以四种类型, 描述了古代韩中日语作品中女性嫉妒的表现: 一, 自我抑制型(抑压型) 二, 抑制自他型(潜在型) 三, 自我发散型(变异型)

四, 自他发散型(单纯破坏型和变异型的复合破坏型). 通过这四种类型, 对女性的嫉妒心理进行了分析, 并对其内心反应出的社会的认识和当时的女性观进行了剖析.

古代韩中日文学作品中, 同时将女性的嫉妒心归为女性的天性, 都将家庭不和睦的责任转嫁给女性. 具有嫉妒心的女性凶狠丑陋, 应该受到社会的隔离和处罚. 即, 女性的嫉妒就是罪恶, 将会自取灭亡. 社会所追求的是具有忍耐, 顺从, 牺牲等美德的贤妻良母, 与其对应的“嫉妒”的女性一定被惩罚. 这些教训在韩中日三个国家的古代文学作品中有深刻的体现.

關鍵詞： 女性 嫉妒 韩中日 古代文学 比较文学

투 고 일 : 2012.2.26

심 사 일 : 2012.3.10~4.15

게재확정일 : 2012.4.20